

각종 방식의 잔털극소화 면사로 생산되는 편성포들

일본 면방적업체의 니트소재나 니트제품부문에서, 잔털이 적고 합섬과 비슷한 광택이 나는 잔털극소화 면사(毛羽極小化綿絲)라고 하면 컴팩트사(compact絲)를 연상하게 되는데, 발색성(發色性)이 좋아서 선염사(先染絲)로 짠 드레스셔츠감으로 제일 먼저 상품화된 컴팩트사는 머서화(mercer化)가공을 하지 않고도 머서화면사 수준으로 광택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잔털이 거의 없어 모소(singeing : 잔털태우기)할 필요가 없어,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일수가 줄고 그만큼 생산코스트가 떨어지는 이점(利點)도 있어, 편성포로서도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도코보(同興紡)는 인도에서 생산된 컴팩트사를 수입하여, 일본 내에서 잔털극소화 면사분야에서 가장 앞서 가면서 편성포용 소재로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 컴팩트사는 인도의 람코그룹이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면으로는 “알티마”라는 브랜드로, 이집트면으로는 “e알티마”라는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다. 이들 면사는 원형편(円型編)용이나 횡편(橫編)용 소재로 판매하면서 도코보는 직접 원형편성포로도 판매하고 있다.

초기에는 컴팩트사가 직사(織絲)용으로만 판매되었는데, 서서히 니트사로도 판매가 늘고 있다. 원형편용으로는 40수 단사, 50수 단사, 80수 쌍사, 횡편용으로는 50수 쌍사가 판매되고 있다. 원형편용 사는 이듬해 춘하절용 소재를 8, 9월부터 미리 주문받고 있어, “컴팩트사가 2년 만에 정착하였다”고 보고 있다.

원형편성포로는 신사용 및 여성용 아우터(outer)가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

편성포로서의 판매는 좋은 편이 아니지만, 컴팩트사나 인도 면사 “마하바라”로 짠 편성포의 OEM 제품은 순조롭게 잘 팔리고 있다. 봉제는 일본 내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원형편성포 판매가 20% 정도인데, 앞으로는 40%까지 판매를 높일 예정이다.

다이와보는 컴팩트사와 다른 방식으로 잔털을 극소화한 면사를 생산하고 있는데, 2004년 춘하절용 소재부터는 판매용 편성포 원사로 적극 사용하고 있다. 다이와보가 생산하는 편성포의 소재는 거의 절반이 순면 OE사 “텍사스세븐”으로서 캐주얼웨어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고 있다. 편성포는 “나이트(nightie, 여성용 잠옷)”용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생산량의 10%에 불과하다.

이 편성포도 과거에는 기능가공품이 중심이었는데, 차별화된 원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편성포의 기능가공포를 비롯한 나이트제품이 중국에서 일관생산될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럴수록 다이와보는 방적공장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원사부터 차별화한 편성포를 2004년 춘하절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잔털을 극소화한 실로서, 다이와보는 링 방적사 “퓨어컴팩트(Pure compact)”와 OE 방적사 “에어컴팩트(Air compact)”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아우터(outer, 외의), 캐주얼 외에도 이너(inner, 내의), 나이트 등의 차별화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잔털을 극소화한 면사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국의 “소주대화침직복장(蘇州大和針織服裝)”이나 중국의 다른 협력공장을 활용하여 니트제품 OEM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구라보는 여성의 “아우터”용 편성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잔털을 극소화한 면사 “미방(美紡)”시리즈를 공급하고 있다. 이 시리즈에는 실이 반듯하고 차진 맛이 있는 정방교연사(精紡交撚絲) “크로스스핀”이나, 구라보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가장 잔털이 적은 “클리어스핀”과 컴팩트사이면서도 벌키(bulky)한 느낌을 주는 “코레나스핀” 등이 있다.

구라보의 “안조(安城)공장”에서는 방적 및 편성하고, 구라시키염공에서 가공하는 일관생산으로 “보고, 입어보고, 만져봐서 나무랄 데 없는 편성포”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현재 여성용이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5년 춘하절부터는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코레나스핀”으로는 60수 쌍사, 80수 쌍사로 세번수화하며, 정제셀룰로스섬유 “텐셀(Tencel)”이나 마, 양모 등과의 복합화로 소재의 고급화도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잔털을 극소화한 실도 “컴팩트사”뿐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만의 기술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이 기계만 구입하면 최신기계에 들어있는 새롭거나 또는 고급기술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런 것이 다른 경쟁국들이 감히 모방이나 추격을 할 수 없는 일본만의 기술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